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5)

천생덕어여(天生德於予)



하늘이 나에게 은덕을 주셨는데...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대선도 끝났다. 전에 같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그 직을 그만 두고 나와 불과 9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우리 역사에도 없었고 아마도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었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국회의원 한번 입후보 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냐고 말한다. 하늘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은 아마도 하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디 이번 경우만 그러했겠는가? 그동안 대통령에 당선된 분들도 하나 같이 하늘이 내지 않고서야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하늘이 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노자(老子)는 '천도(天道)는 무진(無親)이라.'고 하여 하늘이란 특정한 사람을 항상 아끼는 것이 아니라 선(善)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하니 일시적으로는 하늘이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때의 일일 뿐이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한국의 짧은 역사 속에서 대통령을 지낸 분들 가운데 끝까지 영광스럽게 마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말로 천도무친이어서 하늘이 내기를 했지만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하늘이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역사 속에도 제왕 된 사람들은 저마다 하늘이 냈다고 하며 자기는 천자(天子)라고까지 하였다. 그 가운데 전한(前漢) 말(末)에 권력을 장악하던 한왕조를 뒤집어엎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신(新)이라는 왕조를 개국한 왕망(王莽)도 스스로 하늘이 냈다고 하였다.

왕망은 원제(元帝)의 황후 왕정군(王政君)의 조카로 성제(成帝)의 애제(哀帝)를 거치면서 황제가 제구실을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 평제(平帝)를 세웠다가 자기 말을 듣지 않자 독살하고 두 살짜리를 데려다가 황태자로 삼고 자기 가섭(攝)황제 가(假)황제를 거쳐서 진짜 황제에 오른 사람이다.

가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황제로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적당한 방법이 없었는데, 전국에서 올라오는 부서(符璽)에 '왕망을 황제로 하여야 한다.'는 문구(文句)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부서를 왕망이 직접 지시하여 만들게 하였는지 아니면 최고 권력가 왕망에게

아부하려는 사람이 만들어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망은 이를 하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진(眞)황제가 올랐던 것이다.

하키는 한왕조를 창건한 유방(劉邦)에게도 평민의 신분으로 황제가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설화가 있다. 처음 기병(衞兵)할 때에 밤중에 길을 가다가 백사(白蛇)를 만나자 이를 베었더니 어떤 노파가 '백제(白帝) 아들인 백사를 적제(赤帝) 아들인 유방이 베었다.'고 울면서 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적제의 아들이므로 황제가 되는 것은 하늘의 뜻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하니 왕망이 부서(符璽)를 하늘의 뜻으로 보고 황제에 오른 것을 나무랄 이유가 없다. 다만 천도무친이어서 그 후로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하든가 떠나든가 할 것이다. 그런데 유방은 귀족이 아니면 안 되었던 진말(秦末)에 평민의 몸으로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으니 파격적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전후한(前後漢)을 합하여 400년간이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왕조를 이어 갔다. 그것은 근 500년에 걸친 전국(戰國)시대에서 진(秦)에 이르는 혼란과 폭정을 마감하여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살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망은 그가 등극하고 신(新)을 세우고 15년 만에 그의 아들에게도 물려주지 못하고 자신이 갈가리 찢기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왕망도 유방과 똑같이 하늘의 뜻을 받아 황제가 되었건만 그 결과는 이렇게 달랐다. 무엇 때문일까? 하늘의 뜻을 잘 못 이해한 때문이 아닐까?

왕망은 어렵게 황제가 되고 나서 허황된 것에 역량을 소비하였다. 자신을 높이려고 이웃나라를 무시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국내적으로는 허황된 이념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밀어 붙이느라고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었다.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은 살려고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일도 벌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면 남의 것이라도 훔쳐야 가족을 먹일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 도적이 되었고 이들이 모여서 도둑 같은 무력집단을 만들었다. 이들이 녹림병(綠林兵)이고, 하강병(下江兵)이며 신시병(新市兵)이고, 평림병(平林兵)이었다.

다시 백성들은 왕망의 폭정 위에 도둑 같은 무력집단이 득실거리자 누구에게도 마음들 줄 수 없어서 백성들은 왕망이 등장하기 이전의 한왕조를 그리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願望)을 안 남양지역의 유씨(劉氏) 집안에서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

을 내건 무력 집단이 나타났고, 이들은 정치적 역량으로 도적집단까지 끌어 들여 자기들의 세력으로 만들면서 왕망을 압박하였다.

드디어 이들 한군(漢軍)이 장안을 압박하자 장안에서는 백성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봉기하여 왕망을 공격하였다. 이들은 궁궐문에 불을 지르고 도끼로 부수면서 '왕망 나오라'는 소리가 궁전 안까지 들려 왔다. 그는 드디어 선실전(宣室殿) 앞에 있던 전전(前殿)에 불이 나자 비장한 모습으로 천문랑(天文郎)에게 점을 치게 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은덕을 주셨는데 한병(漢兵)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천도무친을 물러서일까? 진짜 천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은 것일까? 이렇게 왕망은 또 천심을 내세우면서 백성을 속이려고 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속지 않았고 일은 그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 점치는 일을 했지만 불꽃처럼 일어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새벽에 전전(殿前)에서부터 점대(漸臺)로 옮겨 가야 했다. 사람들은 왕망이 점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점대를 수백 겹으로 둘러싸고 그를 위해 싸우던 사람도 거의 다 죽었다. 결국 왕망은 이들에게 죽고 목이 잘렸고, 군인들은 그의 몸을 갈가리 찢어 나누고 저마다가 서로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다. 왕망은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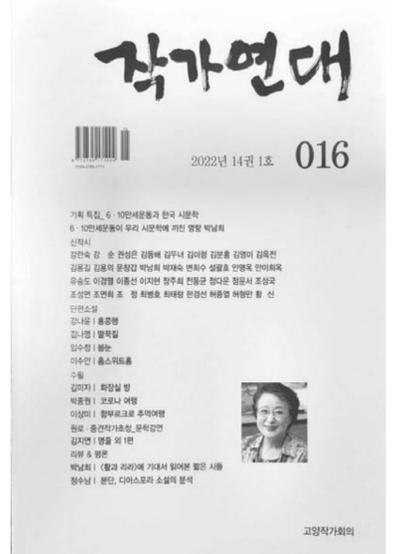
왕망을 멸망시킨 것은 그가 민심을 여겼기 때문이니 만약에 천심이 있다면 이러한 민심을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유방이 세운 왕조가 오래 간 것은 천심에 민심이 깃들여 있음을 알고 변하는 민심에 어느 정도 대응하였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나 왕망은 민심을 살피기보다는 하늘에 제사지내고 점치는 일을 먼저 했으니 민심으로부터 이반(離反)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신구대통령이 교체되는 시기이다. 두 분 다 하늘이 내신 분이지만, 통치하는 동안 하늘의 뜻이 깃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치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왕망 처럼도 되기도 하고 유방처럼도 되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전임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여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러나는 대통령은 이제 조용히 하늘의 뜻인 민심이 내리는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 헌정 70년 역사 중에서 가장 민심을 잘 파악하여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빌어 본다.

■ 이달에 만난 사람

권옥희(權玉姬, 필명 권성은, 북야공파 36世, 시인)



권 시인은 안동시 풍천면 가일마을 출신으로 고양시 소재 '고양작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4월 19일 오후 6시 제89회 '고양포럼'이 고양 아람누리 새라세 극장에서 열렸다.

이달의 주제는 '장준하 민족, 국가와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먼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장준하 선생의 삶'이라는 발제 강연을 하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張豪權, 안동장씨) 선생이 자신의 회고록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장준하 선생은 안동권씨와 함께 고려건국의 공신 장길(張吉) 장군의 후예이고 지금 파주 '고려대전' 사업을 권문, 김문과 함께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고양파주흥사단(지부장 조항원)이 주관한 바 권옥희 작가가 이 단체의 핵심으로 행사에 열중하고 있어서 반갑게 인사하였다.

그는 [작가연대]라는 책자를 건네주면서 이번호의 특징은 6.10만세 운동의 주역이며 권문의 자랑인 막간 권옥희 선생 특집을 엮었다고 하면서 증정

본을 대중회에 전해달라고 하였다. 주 내용은 '6.10만세운동과 한국 시문학'이라는 특집이 80여 쪽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제 행주산성 권옥희장군의 유적이 소재한 고양에서 권문의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권옥희 작家的 활발한 활동내용을 전하면서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바이다.

글 권옥희 기자

권갑현 편집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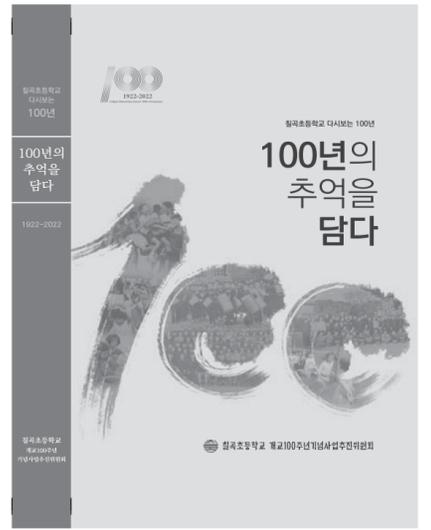
모교 '칠곡초등학교 100년의 추억을 담다' 출간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모교인 경남 의령 칠곡초등학교 100주년을 맞아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집팀장을 맡아 작년부터 "칠곡초등학교 다시보는 100년, 100년의 추억을 담다"를 기획하여 지난 1년 동안 자료 수집과 편집을 마치고 드디어 5월 1일 출간하게 되었다.

경남 의령 칠곡초등학교는 1922년 개교하여 2022년 10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초등학교이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경남 의령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재학 중일 때는 한 학년에 약 200여 명에 전교생이 1,000여 명에 상당했으며 누적 졸업생 수는 4,714명에 달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은 한 해 신입생 한두 명, 두세 명으로 겨우 겨우 이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100년 후에 '칠곡초등학교 200년의 추억을 담다'를 기약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칠곡초등학교 100년의 추억을 담다' 출간의 의미는 크지 않을 수 없다. 편집국장 권행완



<2022年 4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03. 31.~04. 27. 총 3,300,000원

총 납부자 53명 지사·지국 3곳

(이름순)

권경숙(대구)	30,000	권도갑(익산)	30,000	권영구(제천)	30,000	권용복(천안)	30,000	권창택(김포)	30,000	宗報 보내기 운동	
권계동(안동)	30,000	권동한(포항)	30,000	권영락(성주)	30,000	권용태(서울광진)	30,000	권천일(서울은평)	30,000	권오상(대중회)	140,000
권금림(군산)	30,000	권동현(서울강동)	30,000	권영만(봉화)	30,000	권인달(대구)	30,000	권태원(경기김포)	30,000	권재익(경기용인)	90,000
권기범(경기수원)	30,000	권병국(성주)	30,000	권영부(경기김포)	30,000	권일혁(경기화성)	30,000	권태정(서울영등포)	30,000	권정대(대구)	30,000
권기성(안동)	30,000	권병선(서울동대문)	30,000	권영양(경기양평)	30,000	권중웅(대구)	30,000	권태훈(경기시흥)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기안(경기용인)	30,000	권봉택(서울동대문)	30,000	권영진(경기성남)	30,000	권주연(안동)	30,000	권학주(원주)	30,000	부산총친회	1,000,000
권기원(안동)	30,000	권상열(대구)	30,000	권영홍(부산)	30,000	권중규(안동)	30,000	권혁열(경기구리)	30,000	구미총친회	400,000
권기철(예천)	30,000	권상흠(부산)	30,000	권오권(안동)	30,000	권중봉(거제)	30,000	권혁인(대구)	30,000	권순구 대표 140,000 (원주 비전력부위파종중)	
권대근(대구)	30,000	권수익(제천)	30,000	권오준(서천)	30,000	권중석(서울동작)	30,000	권호달(영월)	30,000	납부자 정정 명단	
권대현(인천)	30,000	권순옥(경기고양)	30,000	권용만(경기연천)	30,000	권중섭(경기수원)	30,000	권희철(부여)	30,000	권재민(서울서초) → 권한옥(대구) 30,000	